

광주 중·고교 서술형 시험 확대

총 배점 지필수행평가 20%·정기고사 10% 이상 출제 의무화

시교육청, 올 1학기부터 시행키로

광주지역 중·고교 내신시험의 주관식 문제가 올해부터 기존 단답형 위주에서 서술형 중심으로 전면 바뀌어 출제된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안'을 마련, 올해 1학기부터 전체 중·고교에서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중·고등학교 1~3학년의 내신시험의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각각 총 배점의 20% 이상을 서술형 문항으로 출제해야 한다. 정기고사(중간·학기말 시험)에서는 서술형을 10% 이상 출제하도록 의무화 했다.

는 식이다.

지리과목의 경우 하전과 주변마을이 그려진 지형도를 제시한 뒤 '하천 퇴적지형 특성을 토지 이용과 연관되어 서술하시오.' 같은 유형의 지문이 출제된다.

시교육청은 서술형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정과목 교사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내고 공동 체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지문의 출제, 정답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해 문제를 출제도록 했다.

교육청은 수행평가를 대신화하기 위해 수업시간 글쓰기, 토론, 실험 등 교과활동을 교사가 직접 관찰해 평가하도록 했다. 과학교과의 경우 실험 보고서, 영어는 회화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수행평가에서 기존 과제를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되, 과제형 평가를 시행해야할 경우 과제물 제출 계획, 중간점검 등을 거쳐 대리작성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술형 시험 평가 기준을 정할 것을 권장하고 그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단편적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바꾸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서술형 위주 시험 방안을 마련했다"며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항이 출제되면 참고서 문제 풀이식, 정답 고르기 등 현행 시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운전대 잡으면 허벅지 '더듬'

나주시 운전학원 강사 상습 성추행... 경찰 수사

나주의 한 운전학원 강사가 상습적으로 여성 교습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나주경찰은 14일 K(18·고교 3년)양이 나주의 모 운전학원 강사 심모(42)씨로부터 교습을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나주시내를 돌며 주행연습을 하던 중 K양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K양은 경찰에 "심씨가 주행연습 도중 윈손으로만 운전을 하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오른손을 각기 끌 때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씨는 "의욕적으로 운전교습을 하던 중 발생한 오해

일 뿐 성추행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심씨의 경우 과거에도 수차례 성추행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학원 교습생 등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1월에도 20대 여성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학원비를 환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자 해당 학원을 다닌다던 여학생 5명이 심씨에 대한 교습을 거부하는 등 여성 교습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고습생은 심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별도로 학원 측에 도 재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학원 A원장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사표를 제출받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시교육청, 교육장 권한 축소 말썽

일반직 전보·임면권 교육감 권한으로... 자율 역행

조례 제정 추진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교과부에 권한 위임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지역 교육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조례안을 제정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동·서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위임했던 사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육장 위임사무 중 일반 개정(기능적 포함) 6급 이하 관내 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휴직 및 복직권한 등을 본청(교육감)으로 전환하는 것을 폴자로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법인(사립학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 및 취소권한, 법인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수리, 시정지도, 재정지원권도 삭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현장업무를 강화하도록 행정사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 안팎에선 초등학교와 중학교 행정실장 등 6급 이하 하위

직 전보권한까지 교육청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교육감들이 수차례 교과부의 권한 중 공모제 유형 결정 등 상당 부분을 지역 교육감에게 이양하도록 요구한 것과도 배치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말하면서 정작 교육장 하위직 전보권을 박탈한 것은 교육장을 허수 아비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고 비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병무청 올 첫 징병검사

2011년도 광주·전남지역 첫 징병검사가 실시된 14일, 광주시 동구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에서 1992년 이전 출생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입 자유' 병원 제 집 드나들 듯

9차례 금품 절도 차량까지 훔쳐

남부·서부경찰 2명 검거

병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4일 광주지역 병원 민관 골라 털어 온 이모(31)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 남구 모 병원 1층 진료실 책상 서랍에서 현금 10만 원이 든 간호사(여·26)의 지갑을 훔치는 등 광주지역 병원 9곳에서 9차례에 걸쳐 총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병원 특성상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노려 병원에서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

이날 광주서부경찰도 병원에 걸려 있던 간호사의 옷에서 빼낸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훔친 송모(2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모 병원 1층 상담실의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간호사(여·45)의 코트에서 차량 열쇠를 몰래 빼간 뒤 병원 인근에 주차돼 있던 간호사의 마티즈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인 송씨는 이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병원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

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법 건축물 묵인 서구청 공무원 징역형

돈 받은 50대로 집유 2년

건축주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도 하위 공문서를 꾸며 이를 묵인해주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뇌물 액수가 적고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은 착각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김씨는 2009년 8월 또다른 김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광주시 서구 청 공무원 김모(45·8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면허를 빌려 건축사업부를 하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허를 빌려 건축사업부를 하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면허를 빌려 건축사업부를 하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고도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이를 묵인해주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뇌물 액수가 적고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은 착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 "이날 오전 6시30분께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참석하지 않아 사무에 기관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울산현대중공업에서 상무보로 승진한 뒤 현대삼호중공업으로 발령받았으며, 이곳에서 도장부 책임자로 일해왔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김씨는 울산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라. 미안하

다. 잘 살아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8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학교 조경공사 현장

자재 훔친 4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14일 학교 조경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훔친 정모(49)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30분께 한평 모 중학교 화단 조경공사 현장에서 320만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업자인 정씨는 우연히 이 중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자재를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조경공사 현장에서 320만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업자인 정씨는 우연히 이 중학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자재를 훔쳐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억대 메신저 사기

현금 인출책 영장

순천경찰

순천경찰은 14일 해킹한 인터넷 메신저 정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김모(3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조직원이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이모(여·43)씨에게 1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수십명에게 2억~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금 인출책인 김씨는 중국현지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메신저 해킹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현금을 인출해 중국에 송금한 뒤 6% 가량을 자신이 쟁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승객이 실수로 두고 내린 고가의 휴대전화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20대 택시기사가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김모(24·답양군 부정면)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께 자신의 택시를 탔던 승객 죄모(여·20)씨에게 "현금 15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차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모는 이날 자신의 택시를 탔던 죄씨에게 뒷좌석에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택시를 걸어 놓았는데, 경찰은 김씨를 검거해 절도와 공갈 혐의로 입건.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9급 종합반 (이론)

9급 문제풀이

법원/검찰직